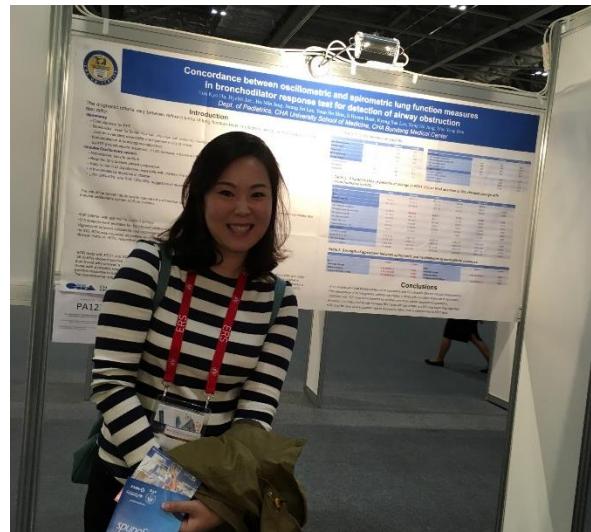


## 2017 ERS를 다녀와서

지혜미(분당 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금번 ERS는 패션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다. 이탈리아의 로마는 일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밀라노는 처음 가는 곳이라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학회 장소는 밀라노의 중심부에서 약 20분 정도 전철을 타고 가면 도착하는 밀라노 컨벤션 센터에 있었는데, 학회와 관광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로 숙소를 밀라노 중심부의 두오모 성당 근처에 잡고 일정을 보내기로 했다. 덕분에 밀라노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매일 아침 멋진 종소리와 두오모 성당의 장엄한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 학회까지 가는 전철은 일상을 시작하는 밀라노 사람들로 늘 북적였는데, 그래도 뭔가 로마보다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이 있었다. 길을 걷는 사람들도 누가 밀라노 사람인지 금방 알아챌 만큼 멋쟁이들이 많았다. 역시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라는 말이 맞았구나 생각하며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꽤 쓸쓸했다.

지금까지 학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학회는 초반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려서 짐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는 이동 과정에서도 여간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예전 로마 방문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던 아픈 기억이 이탈리아에서 전철을 타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데다, 비까지 내려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 신경이 곤두섰지만 다행히 사람들이 꽤 친절하고 세련된 매너를 보여줘서 좋은 인상으로 남았다.



어쨌든 비가 많이 오는 일정 덕분에 학회장 내부는 더 북적였던 것 같다. 최근 국제 학회를 수년간 경험하면서, 등록 때 함께 주는 가방과 브로셔, 안내책자 등이 점점 줄어들고 간소해 진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다.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언젠가는 등록해도 아무것도 안주겠다' 하며 선생님들과 농담을 한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 ERS에서는 안내 책자를 넣어 주던 가방 배포가 없어졌다! 꽤 충격이었다.. 더 이상 초록집도, 두꺼운 프로그램 책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은 App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듯 하였다.

주로 소아 호흡기에 관련된 강의를 주로 찾아 들었는데 특히 소아의 bronchiectasis에 대한 강의는 꼭 듣고 싶었던 강의였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아들은 bronchiectasis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로 적다 보니 경험이 아주 많은 expert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훈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 군다나 non-CF (cystic fibrosis) bronchiectasis에 관련된 내용이라 더 관심이 갔다. Anne Bernadette Chang이라는 호주 선생님이 protracted bronchitis와 bronchiectasis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주셨는데, 동양계이면서 두꺼운 잠자리 안경에, 단상 뒤로 숨어있는 듯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키를 가지신 분이셨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감동적으로 위트있게 강의를 하셔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분을 그냥 마주쳤다면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수하신 분이었다. 나도 몰랐던 내가 가지고 있던 외모에 대한 편견도 무한 반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저 자리에 서시기 까지 얼마나 많은 나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 싸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강의였다. 최근 만성 기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protracted bronchitis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protracted bronchitis가 bronchiectasis의 전구 질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거를 제시하셨다. 강의 끝에는 열띤 질문이 이어졌는데, 항생제를 쓰는 기간과 종류, 방사선 학적 이상에 대한 해석 등등 내가 궁금해 했던 내용이 똑같이 질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모든 의학적 고민은 전세계적으로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외에도 몇몇 소아에 관련된 강의들과 포스터를 흥미롭게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호흡기 학회에서 예년에 비해 Tuberculosis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전에 비해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강의도 늘어나고, 포스터 session에서도 각국에서 예년에 비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화려한 놀이동산 같은 학회장의 부스들도 둘러보면서 최신의 약물들과 키트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국제학회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교과서나 저널에서 이름만으로 상상하고 만나던 석학들의 생생한 강의를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내 옆에서 포스터를 발표하던 네덜란드 선생님과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어제 저녁까지 외래를 보고 오늘 달려오느라 많이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런 큰 학회에서 저런 훌륭한 인사들의 강의를 단 몇시간만 열심히 달려오면 들을 수 있는 축복받은 환경에 있다는 것이 내심 너무 부러웠다.

학회장에서는 늘 돌아가면 다시 한번 열심히 연구와 진료에 매진해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벌써 산적해 있는 여러 한국의 일들을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언젠가는 나도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학회에 다시 참석해서 유럽의 저 석학들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상상하면서 목표를 잊지 않도록 다잡아야겠다.